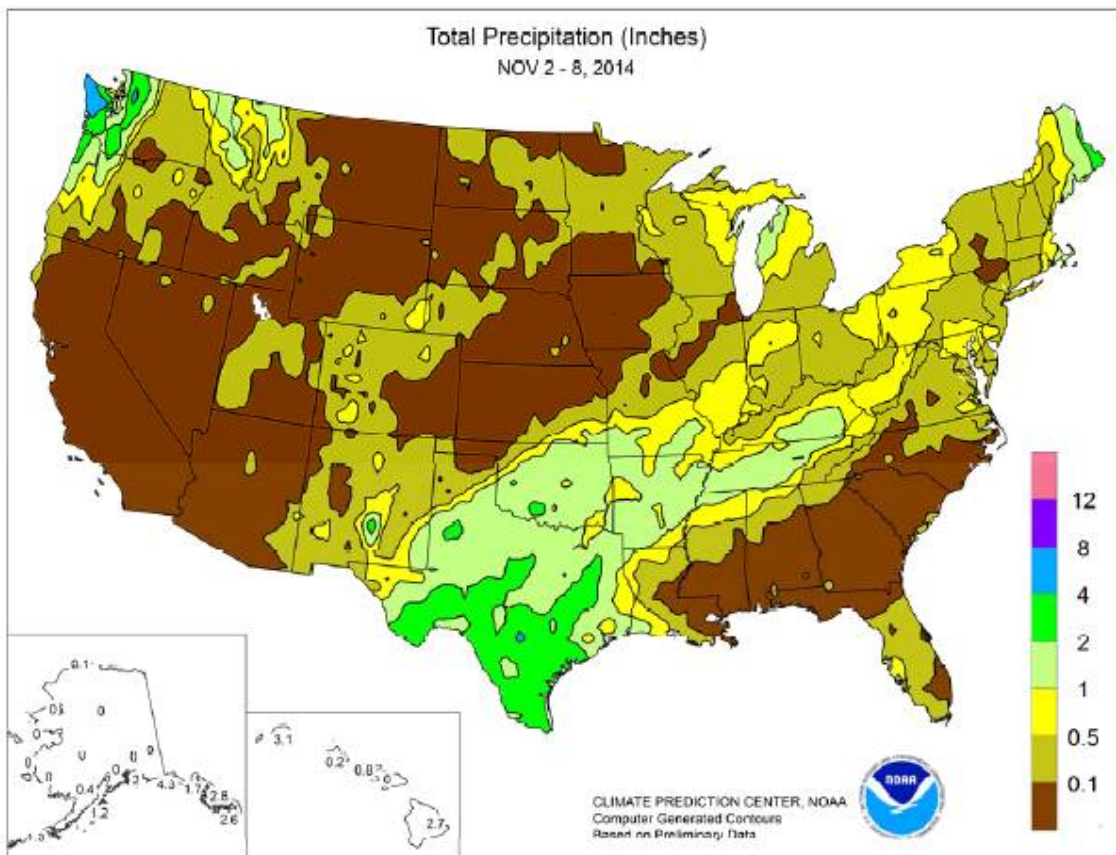


11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45)

□ 미국 기후 현황(11/02~11/08)



올 가을 들어 4번째로, 이전에 동부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 남은 수분들이 미국 남서부와 남부 중앙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였다. 이 때, 허리케인 Vance의 영향으로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도착하기 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 수분과 북미 지역의 한랭 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2인치를 초과하였고, 테네시 계곡 인근의 동부지역에서도 적어도 1인치 가량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최근 몇 주간 건조한 날씨가 주로 나타났고, 11월 초순에서는 비가 내려 가을밀의 수확을 증진시켰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지역은 없었다. 한편, 서부지역에서는 온난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야외 농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북서부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적어도 5°F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 나타난 따뜻한 날씨는 동부에서 대평원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여름작물의 수확과 가을 야외 농작업을 촉진시켰다. 텍사스와 동부 캔자스 지역과 같이

많은 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평원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5~10°F 이상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남부와 동부 및 중서부 하단 지역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나타났다. 남동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나타났는데, 많은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적어도 5°F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동부 지역의 경우 11월 2~3일이 가장 추웠고, 북부 루이지애나에서 북부 플로리다 지역까지 결빙현상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와 동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대체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생산자들은 여름작물의 수확과 가을밀의 파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이상기후로 인해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 지연 및 늦은 작물의 성숙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11/03~11/09)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대체로 평년보다 6°F 정도 낮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서부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을 나타냈으며, 몬태나 일부 지역과 워싱턴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대비 기온이 10°F 이상 높았다. 실질적으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3인치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콘벨트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농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 옥수수

주말 기준, 전국 옥수수 수확량은 80%p로, 전년대비 2%p 뒤쳐졌고, 5년 평균대비 동일한 수준이다. 옥수수 수확의 속도는 2014년 성장 시즌 동안, 5년 평균 대비 처음으로 뒤쳐지지 않은 상태이며, 10월 19일의 22%p 부족한 상황을 만회하였다.

■ 대두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두의 수확은 90%p가 진행되었으며, 전년대비 동일하고, 5년 평균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요 대두 생산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18개 관측 주(州)들 중 9개 지역에서 2자리 수의 수확 진행률을 보였다.

■ 면화

11월 9일 기준, 면화의 수확은 62%p로, 전년대비 8%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2%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고원평야와 텍사스 지역의 경우, 면화의 수확은 최근 강수량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밀

11월 9일 기준, 전국적으로 93%p의 가을밀을 파종하였으며, 전년대비 다소 뒤쳐졌지만, 5년 평균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기준, 전국적으로 가을밀 출수율은 83%p로, 전년대비 동일하지만, 5년 평균대비 4%p 앞선 상황이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6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다소 상승한 수치이지만, 전년대비 5%p 낮은 수치이다.

□ 세계 기후 현황(11/02~11/08)

■ 유럽: 서부와 남부 유럽에서는 불안정한 날씨가 증가되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유럽

에서는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지난주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이 서부와 남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강수량이 10-50mm를 기록하였고, 가을밀과 보리의 파종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증가시켜주었다. 또한, 2014-2015년의 겨울 우기를 시작하는 좋은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75mm)가 내렸고 프랑스, 영국, 저지대 국가들은 겨울 곡물과 유채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한 폭우(50-200mm)가 내린 이탈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고 겨울 곡물의 재식재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홍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비와 산악지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겨울 작물에 필요한 효과적인 수분을 공급하였으며, 여름 관개를 위한 주요 수자원의 원천이 되는 수분 보유량과 산악지역 스노우팩을 증가시켰다. 한편, 비록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중부지역에서는 비(5-25mm)가 내려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지만, 북동부 독일과 발칸반도에서는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는 겨울 작물의 수립과 후기 여름작물의 수확을 촉진하였다.

- 구소련(서부):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가을밀 재배지역에 팽배하였고, 북부와 서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더욱 따뜻한 날씨가 도래하였다.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형성되었고, 남부 러시아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낮은 것(1-4°C 낮음)으로 나타났다. 남부 주요 밀 재배지역의 밤 최저기온은 영하 5°C를 기록하였으며, 주간 평균 기온은 5°C 미만을 기록하여 러시아 남부와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의 휴면이 시작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 한정되어 비와 눈(1-20mm)이 내렸다. 한편, 모르도바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북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은 기록되었으며, 11월 초에 발생한 추운 날씨는 작물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 동아시아: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중국 북부 평원지역에 지속되었으며, 가을밀의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적절한 수립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관개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남지역에서는 소량의 또는 적당한 양의 비가 지속해서 내렸으며, 밀의 토양 수분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쯔계곡에서는 따뜻한 날씨(주간 평균 기온은 15°C 정도)가 겨울 유채의 수립에 도움을 주었고, 한 주 동안 이어진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내린 많은 양의 비는 작물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 호주: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서부와 남동부 호주에 지속되었으며, 밀, 보리, 카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증진시켰다.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산발적이며, 소량의 비(5-25mm)가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와 남부 퀸즐랜드에서 내렸고, 국지적인 수분 공급을 증가시켰다. 비가 내린 탓에 일시적으로 가을 밀 수확과 여름작물의 파종과 같은 야외 농작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연되었지만, 비는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여름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표토층의 수분을 필요한 양만큼 제공하였다. 면화와 수수의 초기 수립에 요구되는 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름작물의 파종에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밀 벨트 지역에서는 대체로 계절에 적합한 기온이 유지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1°C 이내의 차이가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국지적으로 내린 많은 양의 비는 여름작물의 파종을 지연시켰지만, 대부분 농업 생산지역의 경우 작물의 발아와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2주 동안 많은 양의 비(50-100mm)는 파라나 계곡 유역(북부 Buenos Aires와 Santa Fe 인근지역 및 Entre Rios)과 북동부 지역(Chaco와 Formosa의 동부)에 집중되어 내렸다. 소량의 비(5-25mm)는 서부 생산지역(La Pampa에서 북부 Salta 지역)에 내렸으며, 여름 곡물과 유채의 발아와 수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가 환영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간기온은 평년대비 낮은 상황이었으며, 지난 몇 주간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주말경에, 남부 농업지역(La Pampa와 Buenos Aire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후반을 기록하였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30°C 후반을 기록하였다. 11월 6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해바라기 파종은 52%p가 진행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74%p였던 것과 비교가 된다. 옥수수 파종은 올해 35%p, 전년동기 대비 37%p가 진행되었다.
- 브라질: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려 작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일부 계절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농작업이 비가 많은 내린 탓에 지연되었다. 강수량은 지난주에 이어 남부 브라질로 확대되었으며, Rio Grande do Sul에서 남부 Minas Gerais 지역의 총 강수량은 50mm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지역인 Minas Gerais와 Sao Paulo의 커피와 사탕수수의 수립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또한, 대두, 옥수수, 기타 여름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Rio Grande do Sul 지역의 밀 성숙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부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몇 °C 높았으며(낮 최고 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초반), 이로 인해 여름작물의 발아 성장과 특수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한편, 중서부 지역(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25-100mm)가 내려, 대두의 발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북동부 내륙지역(서부 Bahia와 남부 Tocantins)도 래하였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두와 기타 작물의 파종을 부양하였지만, 추가적인 비는 작물의 발아와 적절한 수립을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3°C 높았고(낮 최고 기온은 30°C 중·후반) 대두의 발아 성장이 확산되었다. 한편, 소량의 비(25mm 미만)은 북동부 연안에 내렸고, 일시적으로 사탕수수와 기타 작물의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다.